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안: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 이 구* · 김 현 태**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 요 약 》

본 연구는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을 통해 2011년에 수립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세부과제별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고,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특수학급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교육정책으로 인해 장애·비장애학생 대상의 성교육 및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연수 확대, 상설모니터단 역할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권교육의 교육과정 반영이다. 교육과정 내 시수확보를 통해 장애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및 학부모 지원 강화이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정책을 제도화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 지원 강화이다. 상설모니터단 관련 예산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예방활동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학교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권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확대이다.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사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성과

* 제 1저자(ygwoo@moe.go.kr)

** 교신저자(purelyht@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보인 시기는 1990년대 초였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다. 1995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이끌어냈고, 그해 12월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었다(고성혜 외, 2012). 그러나 당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고, 장애학생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비장애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11년 광주인화학교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상영을 계기로 장애학생 학교폭력 및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각계각층에서 사건 재수사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부¹⁾에서는 특수학교 인권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와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2011년 12월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근거로 교육부에서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에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4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추진 내용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수립은 2012년부터 시행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이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교육정책이 시행되었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정제영 외, 2014). 그러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는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국가인권위원회, 2015)」과 「장애학생 인권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2)」,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 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와 같이 교육권, 제도, 실태 연구는 실시되었으나 인권보호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1)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가 되기까지 「교육과학기술부」(2008~2013.2)였으나 본고에서는 「교육부」로 통칭함

지지 않아 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2012년부터 시행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2012년~2015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등 교육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성과를 분석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과는 무엇인가?
- 2)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화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을 설치,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제3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2008년~2012년)의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수교육 발전방안의 한 부분으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친화적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 시사점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중앙·지역·학교단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이해 연수 강화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과 전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정부 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 장애학생 자기보호 및 비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를 세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국가 수준에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내실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러한 추진 과제를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설문조사와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1,060명이 응답하여, 응답을 미완료한 13명을 제외한 1,04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은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설문조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여자		827
남자			220	21.01
경력	5년 미만		430	41.07
	5년 이상~10년 미만		228	21.78
	10년 이상~15년 미만		238	22.52
	15년 이상		144	22.73
설립형태	국립		50	4.78
	공립		967	92.36
	사립		30	2.87
학교과정	초등학교		616	58.83
	중학교		274	26.17
	고등학교		157	15.00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계속)

	급별	대상자	성별	교육경력
면 담 조 사	초	특수교사 A	여	10년
		특수교사 B	여	4년
		특수교사 C	남	7년
		특수교사 D	여	5년
	중	특수교사 E	남	3년
		특수교사 F	여	18년
		특수교사 G	여	8년
		특수교사 H	남	4년
	고	특수교사 I	남	16년
		특수교사 J	여	2년
		특수교사 K	여	6년
		특수교사 L	여	12년

2. 연구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장애학생 교육정책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수학급 교사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분석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 운영계획(2012년~2015년) 및 특수교육 통계, 국회 연차보고서와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결과분석(2012년~2015년) 등을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설문지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정책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0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각각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설문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3) 면담조사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적절성과 성과 그리고 개선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특수학급 교사를 개별 방문하여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질문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처교육의 내실화,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에 대한 세부과제의 성과와 애로점 그리고 발전방안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문헌분석 결과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으로 2개 추진과제,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과제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내용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실시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실시	일반학교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인권교육 실시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강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연수 실시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학칙 또는 내부규정 마련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창체활동이나 방과후학교를 통한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표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과제(계속)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교육자료로 보급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실시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연수(집합, 원격 등) 실시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 유관기관(경찰, 장애인복지관 등)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는 성과분석 지표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개발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성과와 질적성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적성과는 교육정책의 추진결과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조사 결과와 문헌분석을 통해 수집한 성과수치를 의미하고, 질적성과는 면담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이 학교에 미친 영향을 의미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에 면담조사 결과를 설문조사 분석의 확인 및 보충 설명 자료로 활용하였다.

1)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및 연수 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중요도가 평균 4.2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도의 평균은 3.71점으로 낮게 나타나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 및 연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에 대한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284 (27.13%)	466 (44.51%)	208 (19.87%)	77 (7.35%)	12 (1.15%)	3.89
중요도	414 (39.54%)	514 (49.09%)	110 (10.51%)	7 (0.67%)	2 (0.19%)	4.27
실행도	212 (20.25%)	406 (38.78%)	343 (32.76%)	81 (7.74%)	5 (0.48%)	3.71
효과성	259 (24.74%)	506 (48.33%)	246 (23.50%)	31 (2.96%)	5 (0.48%)	3.94

5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면담조사에서도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과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교육자료의 부족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되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려움이 많아 초등학교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C)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적합한 자료였다고 생각되며 가족들에게도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학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협력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H)

2)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실시

현재 일반학교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 장애이해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표 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은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높아서 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실시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529 (50.53%)	435 (41.55%)	70 (6.69%)	9 (0.86%)	4 (0.38%)	4.41
중요도	516 (49.28%)	431 (41.17%)	86 (8.21%)	10 (0.96%)	4 (0.38%)	4.38
실행도	363 (34.67%)	471 (44.99%)	185 (17.67%)	25 (2.39%)	3 (0.29%)	4.11
효과성	345 (32.95%)	494 (47.18%)	175 (16.71%)	24 (2.29%)	9 (0.86%)	4.09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인권교육이 중요하고 실제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관련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을 해야 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이와 관련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몇 년 전부터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교육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특별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비장애학생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과의 차이가 많이 없고, 특수교사가 장애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A)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장면에서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 통합학급에서 인권보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더불어 비장애학생들의 어려움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 상황이 아주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F)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인권교육 실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인권교육의 연 2회 이상 교육실시에 대해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실행도와 효과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그렇다, 그렇다)한 응답이 각각 88.07%, 86.73%로 높아져서, 장애학생 대상 성·인권교육이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인권교육 실시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604 (57.69%)	388 (37.06%)	49 (4.68%)	4 (0.38%)	2 (0.19%)	4.52
중요도	575 (54.92%)	398 (38.01%)	70 (6.69%)	4 (0.38%)	0 (0.00%)	4.47
실행도	471 (44.99%)	451 (43.08%)	115 (10.98%)	9 (0.86%)	1 (0.10%)	4.32
효과성	442 (42.22%)	466 (44.51%)	121 (11.56%)	16 (1.53%)	2 (0.19%)	4.27

면담조사 결과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특수교사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처교육은 자기보호역량이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더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학생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강화되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B)

4)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강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권리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 정책에 대한 성과 인식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식도가 평균 4.43점으로 매우 높고, 응답한 96.47%의 특수교사들이 학교에서 관련 연수가 실시되었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6>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강화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541 (51.67%)	428 (40.88%)	70 (6.69%)	5 (0.48%)	3 (0.29%)	4.43
중요도	499 (47.66%)	440 (42.02%)	101 (9.65%)	5 (0.48%)	2 (0.19%)	4.36
실행도	373 (35.63%)	438 (41.83%)	199 (19.01%)	34 (3.25%)	3 (0.29%)	4.09
효과성	368 (35.15%)	485 (46.32%)	169 (16.14%)	20 (1.91%)	5 (0.48%)	4.14

면담조사에서 특수교사들은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 및 일반교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대상 연수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학급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에서의 부모님과 같기에 담임교사의 역량과 태도에 따라 통합학급의 분위기와 장애학생을 대하는 비장애학생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수교사의 10번의 말보다는 담임교사의 1~2번의 말과 태도가 비장애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학생의 인권지킴이로서 나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B)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계시면 교사 및 비장애학생 역시 장애학생 인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여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사 대상 장애 인권 강의를 실시하나 관심 있게 연수를 들으시거나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관리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사 L)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권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일반교사 및 관리자, 비장애 학생, 학부모 등 기존에 알지 못하고 간과하였던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알아 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E)

5)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학칙 또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구성원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398 (38.01%)	440 (42.02%)	155 (14.80%)	46 (4.39%)	8 (0.76%)	4.12
중요도	443 (42.31%)	453 (43.27%)	139 (13.28%)	10 (0.96%)	2 (0.19%)	4.27
실행도	289 (27.60%)	410 (39.16%)	269 (25.69%)	69 (6.59%)	10 (0.96%)	3.61
효과성	340 (32.47%)	470 (44.89%)	210 (20.06%)	23 (2.20%)	4 (0.38%)	4.07

설문조사 결과 인식도,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실행도는 낮았고, 면담조사 결과 그 원인으로서는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을 위해 교육 부나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과성 측면에서는 97.42%의 특수교사들이 내부규정 마련이 장애 학생 인권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조사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칙이나 내부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수교사들이 공감하지만 관련 규정들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 된다는 점에서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은 학교구성원이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준이나 예시 제 시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 못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16조 2항에 있는 (장애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밖에 넣지 못해 차후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사 K)

6)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를 통한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 모두가 평균 3점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이 형식적이고 특수교사에게 업무 가중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265 (25.31%)	361 (34.48%)	297 (28.37%)	109 (10.41%)	15 (1.43%)	3.72
중요도	206 (19.68%)	393 (37.54%)	357 (34.10%)	75 (7.16%)	16 (1.53%)	3.67
실행도	144 (13.75%)	312 (29.80%)	451 (43.08%)	125 (11.94%)	15 (1.43%)	3.43
효과성	175 (16.71%)	369 (35.24%)	389 (37.15%)	93 (8.88%)	21 (2.01%)	3.56

면담조사를 통한 특수학급 교사들의 의견도 인식설문조사와 유사하게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개선방안에 반영되면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수사례 발굴은 사실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이고 또 하나의 업무로 받아들여집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발·보급되면 좋겠고, 우수사례 발굴은 발표대회보다는 여러 교육연구대회의 한 영역으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교사는 연수강사로 활용하여 그 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G)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의 경우 관련 장학자료를 통해 다른 학교의 여러 사례를 접해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학자료로 많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사 J)

7)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개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위해 4년간(2012년~2015년) 개발, 보급한 자료의 수는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총 21종 42,700부이다.

<표 9>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연구자료	2종, 1,200부	-	1종, 1,000부	1종, 100부
교육자료	5종, 15,200부	4종, 20,600부	2종, 4,600부	2종(전자자료)

출처 : 운영결과분석(국립특수교육원, 2012~2015)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개발 성과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중요성과 효과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충분히 개발·보급되지는 못했고, 특수교사 스스로도 관련 교육 자료를 제작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개발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370 (35.34%)	432 (41.26%)	192 (18.34%)	45 (4.30%)	8 (0.76%)	4.06
중요도	443 (42.31%)	437 (41.74%)	152 (14.52%)	14 (1.34%)	1 (0.10%)	4.25
실행도	284 (27.13%)	401 (38.30%)	287 (27.41%)	71 (6.78%)	4 (0.38%)	3.85
효과성	359 (34.29%)	443 (42.31%)	209 (19.96%)	33 (3.15%)	3 (0.29%)	4.07

면담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특수교사들은 교육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나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들의 안내 및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장애학생 성교육의 경우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급실정에 따라 특수교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료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운데 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자료를 개발해 주고, 시·도교육청별 개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C)

성교육 자료에 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콘텐츠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수준에는 맞지 않고, 인권교육의 체계와 차시별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E)

8)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실시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연수 강화를 위해 <표 11>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립 특수교육원에서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총 25개 과정을 운영하여 4,058명이 이수를 하였다.

<표 1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과정 및 이수자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원격연수	4개 과정, 1,093명	3개 과정, 778명	4개 과정, 1,064명	1개 과정, 198명
집합연수	10개 과정, 794명	1개 과정, 43명	1개 과정, 28명	1개 과정, 60명

출처 : 운영결과분석(국립특수교육원, 2012~2015)

<표 12>에 제시된 인식조사 결과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운영은 인식도,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다른 연수에 비해 특수교사의 참여 기회가 부족했고, 다양한 형태의 연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실시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389 (37.15%)	449 (42.88%)	179 (17.10%)	24 (2.29%)	6 (0.57%)	4.14
중요도	420 (40.11%)	463 (44.22%)	150 (14.33%)	11 (1.05%)	3 (0.29%)	4.23
실행도	288 (27.51%)	450 (42.98%)	261 (24.93%)	41 (3.92%)	7 (0.67%)	3.93
효과성	347 (33.14%)	468 (44.70%)	198 (18.91%)	30 (2.87%)	4 (0.38%)	4.07

면담조사 결과 장애학생 인권교육과 관련한 특수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연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연수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원격이나 집합연수를 통해 이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하더라도

주로 일회성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교사 역량강화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성교육과 인권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다양한 연수가 개발되어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일반교사도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F)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교육 연수 실시로 학교 현장에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해 교사 및 학생, 학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통합학급 장면에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들로 인해 수업이 방해되더라도 수업 참여를 배제시키기보다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통합학급 교사가 많아졌고, 장애학생을 특수학급 학생이 아닌 통합학급 학생의 일원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사 I)

9)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교 지원에 따른 성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상설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매년 학교 지원 수와 우수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13> 상설모니터단 운영 성과

구분	2012	2013	2014	2015
상설모니터단 수	187	189	190	190
상설모니터단 학교 지원 수	9,023개교	5,166개교	5,048개교	4,674개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수	13건	144건	451건	636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에 따른 지원 수	77건	159건	441건	473건

출처 : 운영결과분석(국립특수교육원, 2012~2015)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의 운영에 대해 <표 14>에서 제시된 것처럼 특수교사들은 대다수 긍정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된 상설모니터단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상설모니터단 운영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565 (53.96%)	382 (36.49%)	87 (8.31%)	10 (0.96%)	3 (0.29%)	4.43
중요도	455 (43.46%)	398 (38.01%)	156 (14.90%)	30 (2.87%)	8 (0.76%)	4.21
실행도	381 (36.39%)	410 (39.16%)	194 (18.53%)	49 (4.68%)	13 (1.24%)	4.05
효과성	371 (35.43%)	400 (38.20%)	208 (19.87%)	54 (5.16%)	14 (1.34%)	4.01

면담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특수교사들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상설모니터단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향후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설모니터단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 주어서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D)

저경력 교사 또는 사안에 대해 대처법을 잘 알지 못한 교사들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주기적인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H)

기존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것에 반해, 상설모니터단의 개입을 통해 장애학생의 특성이나 사건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특수교사 G)

10)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에서는 특수교육,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15>과 같이 매년 상설모니터단 위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5> 상설모니터단 위원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상설모니터단 위원 수	1,283명	1,563명	1,674명	1,796명

출처 : 운영결과분석(국립특수교육원, 2012~2015)

<표 16>에 제시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인식도, 중요도, 효과성에 비해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기관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 성과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평균 (M)
인식도	465 (44.41%)	408 (38.97%)	153 (14.61%)	16 (1.53%)	5 (0.48%)	4.25
중요도	474 (45.27%)	414 (39.54%)	145 (13.85%)	10 (0.96%)	4 (0.38%)	4.28
실행도	337 (32.19%)	390 (37.25%)	262 (25.02%)	49 (4.68%)	9 (0.86%)	3.95
효과성	383 (36.58%)	427 (40.78%)	203 (19.39%)	27 (2.58%)	7 (0.67%)	4.10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A)

과거에 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가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학생이 속한 가정 중에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사 L)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발전방안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우선순위 분석

설문조사 결과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 측면에서 우선순위 결과 <표 17>과 같이 공통적으로 1순위는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인권교육 실시 정책이었고, 10순위는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이었다. 전반적으로 특수교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상위순위에 있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 하위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 17>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인식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 분석

순위	인지도		중요도		실행도		효과성	
	사업명	평균	사업명	평균	사업명	평균	사업명	평균
1	장애학생 교육	4.52	장애학생 교육	4.47	장애학생 교육	4.32	장애학생 교육	4.27
2	상설모니터단 교직원 연수	4.43	비장애학생 교육	4.38	비장애학생 교육	4.11	교직원 연수	4.14
3			교직원 연수	4.36	교직원 연수	4.09	유관기관 연계	4.10
4	비장애학생 교육	4.41	유관기관 연계	4.28	상설모니터단	4.05	비장애학생 교육	4.09
5	유관기관 연계	4.25	자기보호역량 인권내부규정	4.27	유관기관 연계	3.95	교육자료 개발 인권내부규정 성·인권 연수	4.07
6	성·인권 연수	4.14			성·인권 연수	3.93		
7	인권내부규정	4.12	교육자료 개발	4.25	교육자료 개발	3.85		
8	교육자료 개발	4.06	성·인권 연수	4.23	자기보호역량	3.71	상설모니터단	4.01
9	자기보호역량	3.89	상설모니터단	4.21	인권내부규정	3.61	자기보호역량	3.94
10	우수사례 발굴	3.72	우수사례 발굴	3.67	우수사례 발굴	3.43	우수사례 발굴	3.56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실행 시 애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응답자가 3가지를 선택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실행 시 애로점 및 발전방안

구분	순위	내용	응답자(명)	비율(%)	전체(명, %)
애 로 점	1	교사 업무 가중	614	19.55	3,141 (100%)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지침, 매뉴얼 부족	525	16.71	
	3	장애학생 인권교육 자료 부족	506	16.11	
	4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 부족	453	14.42	
	5	장애학생 행동 중재 방안 부족	339	10.79	
	6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인력, 예산 부족	284	9.04	
	7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미비	223	7.10	
	8	법과 지침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처리 미비	175	5.57	
	9	기타	22	0.70	
발 전 방 안	1	교육자료 개발·보급	600	19.10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인력, 예산확대	507	16.14	
	3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강화	505	16.08	
	4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반영 강화	499	15.89	
	5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확대	404	12.86	
	6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법령, 제도 개선	358	11.40	
	7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역할 강화	249	7.93	
	8	기타	19	0.60	

애로점으로는 특수교사 업무 가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침 및 매뉴얼, 교육자료 부족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방안으로는 교육자료 개발·보급이 1순위였고 다음으로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강화,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반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2) 면담조사 결과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미친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인터뷰 방식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 급별로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제안한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표 19>와 같이 10개 세부과제별로 총 34개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6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표 19>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발전방안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초등학교 특수교사 (n=4명)	중학교 특수교사 (n=4명)	고등학교 특수교사 (n=4명)	합계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처 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시급			5	
		관심대상 장애학생 사후관리 강화		유관기관 연계 통한 가족 지원		
		학부모 교육·상담 의무화	지역사회 내 관련 지원 기관 연계 강화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실시	학교 차원의 장애인권 교육 추진			3	
		비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에 따른 특수교사 업무 경감 방안 마련				
		공통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내용 반영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인권교육 실시	학교급, 생활연령에 따른 인권교육 자료 개발·보급			4	
		교육(지원)청 차원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장애학생 중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및 교육 활성화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강화	학교 관리자, 일반교사 대상 장애인권 관련 연수 의무화			4	
		학교 차원의 연수 강화	법국민적 장애인권 인식 개선 캠페인	교원양성과정(대학)내 장애인권 과목 개설 및 의무 이수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교육부,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련 지침 안내			3		
	학교 내 학칙 강화	특수교사 교권보호 강화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교육과정 실천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 우수사례 발굴 지양	우수 프로그램 및 사례 홍보 강화		3	
장애 학생 인권 상담 및 지원 체계 활성화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개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인권교육 자료 개발 강화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실시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검증된 연수 개설	교사 대상 연수 기회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학교전담경찰 대상 장애이해 연수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인권 지원인력 배치			4
학교폭력 사안 대처 매뉴얼 보급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특히, 특수교사) 대처 방안 연수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학부모 인식개선			3		
			장애학생 인권보호 전문조직 설치 운영		장애학생 인권관련 전문강사 양성	
합계					34	

첫째,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이 가장 필요하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연계되어 장애학생 가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특수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교차원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가 제도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생활연령에 따른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특수교사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연수 강화를 위해서 학교 관리자, 일반교사 대상의 장애인권 관련 연수 의무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침 개발이 요구된다. 여섯째,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권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여덟째,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연수 확대를 위해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도 방안을 반영한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아홉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상설모니터단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권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특수학급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인식도, 중요도, 효과성은 평균 4.14점, 실행도는 평균 3.90점으로 평가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온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 인권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2)」,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제안한 상설모니터단 활동 강화, 교사 연수 및 학생 인권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의 방안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정책을 학교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권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시수 확보 후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권교육에 따른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국립특수교육원, 2013)」에 제시된 특수교사의 면담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향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권교육 내용의 교육과정 반영이다. 비장애학생은 물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 수업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자료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권교육이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및 학부모 지원강화이다. 장애학생과 가족의 자기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관련 자료들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바로 활용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이러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개입으로 장애학생과 가족을 지원하는 유형별 모델 개발과 운영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 지원 강화이다. 특히, 성교육, 인권교육 등에 대한 상설모니터단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학생 대상 사안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확대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 다양한 인권주제 등에 대한 교육자료가 개발되어 학교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및 학부모 연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특수학급 교사만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둘째,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지표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향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추가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성혜, 이완수, 정진희 (2012).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 정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희망재단.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12년 특수교육 통계.
- 교육과학기술부 (2012b).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2c).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교육부 (2013a). 2013년 특수교육 통계.
- 교육부 (2013b).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부 (2013c).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부 (2014a). 2014년 특수교육 통계.
- 교육부 (2014b). 201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부 (2014c).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부 (2015a). 2015년 특수교육 통계.
- 교육부 (2015b). 201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부 (2015c).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국립특수교육원 (2012). 2012년 운영결과분석.
- 국립특수교육원 (2013). 2013년 운영결과분석.
- 국립특수교육원 (2014). 2014년 운영결과분석.
- 국립특수교육원 (2015). 2015년 운영결과분석.
- 국립특수교육원 (2016).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정책 인식 설문조사 결과자료.
- 김계옥, 강성중, 김주영, 박종운, 은여경, 정귀순 (2012). **장애학생 인권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삼섭, 박은혜, 김기룡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명경미, 김다현, 민병란, 서현석, 이현수, 임소인, 임수진, 한은정, 한은주, 황정현 (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정현, 강영택, 박승근, 은여경, 이한우, 임희진, 조형석 (2014).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 조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전라남도교육청 (2015). 2015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평가회 자료집.
- 전라북도교육청 (2015). 2015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집.
- 정제영, 박주형, 김성기, 선미숙 (2014).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중요도 분석: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2(2), 1-2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 충청남도교육청 (2015).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Performance and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class teachers

Woo, Yigu · Kim, Hyuntae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class teachers.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class teachers' s awareness, importance,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by detailed tasks of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proposed the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positiv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xual and human rights education was activated, educational materials and program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classroom were strengthened. We were able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improved laws and institu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expanding training, enhanced the rol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monitoring teams.

Development pla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are human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education curriculum,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should be strengthened by links of the family, school, community, support for school by strengthening expertis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monitoring team should be strengthened, development and supply of educational materials should be expanded.

Key Words :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policy, Performance

논문 접수: 2016. 09. 05 심사 시작: 2016. 09. 10 게재 확정: 2016. 10. 03